

투데이

“평창 유치는 한국인 집념·끈기의 승리”

美·英 등 외신, 정부 지원·친환경 요인 등 긍정 평가

日 언론 “김연아 영어·미소 인상적...존재감 빛났다”

외신들은 7일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소식을 주요 뉴스로 상세히 보도하면서 끈질긴 도전정신과 잘 갖춰진 대회 인프라, 친환경적인 요인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한국의 평창이 2018년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창이 개최권을 따낸 요인으로 ▲끈질긴 도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 ▲삼성의 지원 등을 꼽았다.

WP는 작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개최지 발표 직후 “우리는 안시와 민현의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개최지 선정의 교훈은 바로 참성과 인내심이 승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창의 성공 요인으로 잘 준비된 경기시설 및 인프라와 함께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설 등을 꼽았다. 신문은 미국의 동계스포츠 협회들이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고 소개하면서 경기장

에 대한 접근성에 큰 점수를 줬다고 전했다.

미 CNN방송은 이날 현지 취재진을 평창으로 파견해 평창 주민들의 환호하는 목소리와 함께 열광적인 분위기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영국 BBC 방송은 평창이 캐나다의 밴쿠버, 러시아의 소치에 두 차례 연거푸 고배를 마신 뒤 개최권을 따낸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인들이 느끼는 기쁨을 소개했다.

AFP 통신은 “평창은 마침내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그들의 꿈을 이뤘다”고 전했다. AFP는 평창이 1차 투표에서 유호표의 절반을 훨씬 넘는 63표를 얻은 점을 거론하며 형식 면에서도 극적으로 꿈을 성취해냈다고 평가했다.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국인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인 드미트리 체르니센코 등의 말을 인용해 “2018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 경쟁에서 평창이 승리한 것은 적법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해 밴쿠

버 동계올림픽의 피겨 여왕인 김연아가 평창 프레젠테이션에서 유창한 영어로 연설해 승리에 공헌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김연아가 한국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1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정부의 동계올림픽 강화책을 미소 띤 얼굴로 설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조간 1면 사이드 톱 사진으로 작로 국제올림픽(IOC) 위원장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을 발표하는 사진과 함께 웃는 얼굴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김연아의 사진을 실었다. 신문은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유창한 영어로 IOC 위원들에게 말을 건넨 김연아의 존재감이 빛났으며, 프레젠테이션의 메시지도 명쾌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평창이 3번째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도전한 끝에 경쟁 도시에 압승했다”면서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연아의 맹렬한 호소가 인상적이었다”고 썼다.

연남뉴스



김연아가 6일(현지시간) 남아공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프레젠테이션에서 작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남뉴스

광주시·전남도 “동계올림픽 유치 축하”

광주시, 500억 규모 광산업 투자유치

유치위 대표단 오늘 오후 금의환향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내고 “세계무대를 향해 도약하는 강원도의 힘, 평창의 꿈을 147만 광주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와 평창동계올림픽의 동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광주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열리는

광주유니버시아드를 명품 대회로 치러 그 성과물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영 전남지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두 차례의 유치 실패를 딛고 이뤄낸 쾌거이자, 우리 민족의 자력을 세계인에게 보여준 대한민국 의 경사”라고 말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

시키고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높여 줄 것이다”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경제적 효과를 잘 살려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한 평창 유치위원회 대표단은 7일 오후 2시30분(이하 한국시간) 남아프리카 더반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편으로 금의환향한다. 특별전세기는 방콕을 잠시 경유한 뒤 8일 오후 2시10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연남뉴스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차지사, 역대 전남지사 8명 초청

역대 전남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전남도는 8일 오후 3시 도청 서재필실에서 역대 도지사들을 초청, 도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고건 전 총리 (73·18대 도지사)를 비롯, 최인기 국회의원(67·25대 도지사), 장형태(82·19대), 김창식(82·21대), 문창수(73·23대), 박형조(75·26대), 이근범(77·28대), 허경만(73·31~32대) 등 8명의 전임 도지사들이 참석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박주선 “U대회, 지역 균형발전 고려해야”

광주 동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논란을 빚고 있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시설 입지와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산구에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등 모두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전인 시장으로서 꼭 올바른 결정이었느냐”며 “하계유니버시아드는 특정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양궁장(광주FC 전용축구장) 등을 광산구와 남구, 동구에 각각 분산 배치할 가능성을 언급한 강운태 광주시장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U대회 경기장 입지와 관련해 ▲지역 간 균형발전 ▲재정부담 최소화 ▲시민이용 편의성 ▲대회 이후 운영 부담을 감안한 대화와 연계 등 4가지 조건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뉴스 브리핑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우표 발행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감동과 환희가 우표에 담겼다.

우정사업본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본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해 다음달 초 발행돼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kki@

공무원수 크게 늘었다...작년말 98만7천명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어나며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지방 공무원 현원이 98만7754명으로 5년만에 7만2533명(7.9%)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에서의 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공단

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대피소,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명조끼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40만원

피서철을 맞아 바다 또는 강에서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 기구를 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경매투자

- 공동투자 및 자본주 모임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주)일화 기획생산 호남지사모집

당사는 (주)일화의 기획생산 공식지정업체로 향안, 향당노로 세계특허 10개획득한 신물질 발효인삼·홍삼을 취급할

호남지역 파트너를 구합니다

전원내츨러 F&D

www.fnd.or.kr

고객센터 0505-302-1111

주식회사 일화

한자교육 <천자문과 한자성경>으로 배우는 한자교육

<아동 : 00명, 성인 00명을 3개월, 1년 과정 모델교실에 특별 초대함>

한자성경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한글은 3장 정도만 자유롭게 읽는 분야입니다. 한자성경은 한자전용이 아니라 기본 장 및 장만 읽기 되면 한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은 한글처럼 동시에 알게 되고 한자성경 사용교과에 1년 정도 출석만으로 4000여 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천자문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천자문은 고대 중국서사로 삼황에서 삼국시대까지 40여명의 인물과 나라, 지명, 약어(준말)와 옛날 읽기교재로 배우게 되면(방문자 5분에 읽는 천자문 중 정)단기간에 천자문을 누구든지 예전처럼 쉽게 배우고 한자를 한글처럼 아는 지름길이 됩니다.

- 시범강좌 및 교육설명회
- 7월 10일(주일) 오전11시 예배와 오후 2시
- 7월 21일(목요일) 오전10시 (준비관계로 사전접수요망)
- 찾아오시는길 : 광주 수원지구 성덕중학교 건너편 파리버게트 뒤편 에덴의교회 ☎연락처 : 010-3911-3907 062 433 3907
- 강사 : 전제웅원장 (한자교육연구소장, 10년간 한자교육방법연구 한지는 한글보다 쉽다 저자)

성경주문(각쪽 30,000원, 비닐20,000원, 찬송가합본 40,000원 택배비포함)성서공회발행

<교육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주문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 ☎ 010-2218-1255

한자교육(전도학교)연수원(시 군 구 지부 모집 중임)

광주시 광산구 광산구 정덕동 1086번지성덕중학교 건너편

☎ 062-433-3907

• 한자교육연수원 cafe.daum.net/jeodanglove

• 메일 : junhanja@hanmail.net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신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약서비스 · 개인신용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 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KBI세-80%+a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3.93%~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